

## 1960년대 북한 번역본 고찰 - 「비계」 덩어리 *Boule de suif*의 경우

박 선 희  
(고려대)

### 1. 서론

이 논문에서는 19세기 보불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모파상(Maupassant)의 소설 *Boule de suif*의 1960년대 북한 번역본을 검토한다. 현재까지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북한은 1960년대 이후로 세 번의 『세계문학선집』을 출간하였고(오오무라 2003: 359-363), 본 연구에서 검토한 번역본은 그 첫 번째 『세계문학선집』 43권 「프랑스 단편선」에 포함된 번역본들 중 하나이다.

북한의 서구문학번역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영문학 중심으로 김영희(2001)에 의해서 그 전반적 특성이 개관 형식의 논문으로 발표되었고, 원문과 번역문을 상호비교한 번역 비교 연구는 최경희와 홍유미(2001), 그리고 이은정(2019)에 의해서 분석된 바 있다. 이에 비해 북한에서 번역된 프랑스 문학에 대한 연구는 박선희(2019)에 의해서 북한의 프랑스 문학 수용과 번역이 개관 성

격으로 처음 정리되었을 뿐, 본격적으로 원문과 번역문 텍스트가 비교된 연구는 아직 없으므로 본 논문이 그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프랑스 소설이 20세기에 북한에서 번역된 것은 19세기 자본주의 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문학 텍스트가 20세기 사회주의 국가에 의해 번역된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작가에 의해서 창작된 *Boule de suif*가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단면을 반영하듯이, 1960년대 북한에서 출판된 북한 번역은 번역 도착지 국가의 사회적 프리즘을 통해서 한국어로 재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바라보는 번역자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번역본 텍스트 속에 녹아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더구나 이 소설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이므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거쳐 자본주의 국가들과 전쟁을 치른 북한이 냉전시기인 1960년대 시도한 이 번역에서 번역 도착지 사회의 고유한 번역 선택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이 번역본이 문학 텍스트의 번역으로 기본 역할을 하는지 가능자 역할을 할 기준인 번역의 충실성과 가독성을 갖춘 판본인지도 검토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 2. 북한의 「비계」 덩어리

모파상의 *Boule de suif*는 프랑스 갈리마르 (Gallimard) 출판사의 플레이아드 (Pléiade) 판본을 기준으로 39페이지 짜리 분량의 단편소설로서 1870년과 1871년 사이에 일어난, 일명 ‘보불 전쟁’이라 불리는, 프랑스와 프로시아 간의 전쟁 기간에 프랑스 북서도시 루앙 (Rouen)을 배경으로 명목 상 여행을 빙자한 프랑스인들의 프로시아 점령지 탈출기이다. 제2제정 당시의 프랑스 사회를 대표하는 여러 계층들, 즉 귀족, 공장주, 상인, 수녀, 민주투사, 매춘부가 이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들이며, 그들이 프로시아군이 점령한 루앙을 벗어나 프랑스군의 점령지역인 르 아브르 (Le Havre)로 가기 위해 디에프 (Dieppe)까지 육로로 여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다룬다. 프로시아군의 점령지역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므로 전쟁의 승리자인 프로시아 군인과 패배자인 프랑스인이라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커다란 대립 구도를 이루며, 피지배자인 프랑스인들의 내부는 프랑스 사회의 상류층부터 하류층을 포괄하는 다양한 계층을 상징하는

인물들로 구성된다.

*Boule de suif* 속에 담긴 이러한 대립 구도는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은 북한 정권에게 타자에 의한 정치적 지배와 전쟁의 비극을 보여 주며, 부르주아와 종교인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사회 지배 계층의 위선과 이기심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소재이다. 당시 냉전시기였던 1960년대 북한에서 번역 대상으로 선택되기에 무리 없는 서구 소설들 중의 하나였던 셈이다.

실제로 이 단편의 북한 번역자인 한경수가 작성한 번역서의 서문에서 한경수는 *Boule de suif*를 “보불 전쟁을 중심으로 하여 더욱 명백히 드러낸 프랑스의 반동적 부르주아지와 관료배들의 반 인민적이며 매국적인 반동적 본질을 날카롭게 비판 규탄한 모파쌍의 대표적 단편 소설 <비계’ 덩어리>”(스탕달 외, 1965: 16)라고 소개하였으며, 작가 모파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모파쌍은 19세기 말 프랑스 부르주아 사회의 악덕과 범죄를 적발할 수 있는 다방면적인 생활 소재들에 의거하여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성격들을 취급하였지만 파렴치하고 무원칙한 부르주아 정치 모리배와 출세주의자들, 음흉하고 위선적인 기독교 승려들, 비겁하고 랭담하고 리기적인 소시민 근성의 소유자들을 묘사하는 경우 그의 폭로와 비판은 더욱 강하여졌다.”(스탕달 외, 1965: 17-18)

위에서 번역자 한경수가 설명한 것처럼 모파쌍이 그의 작품 속에서 비판한 프랑스의 사회 계층들을 *Boule de suif*의 등장인물들에 대입하여 보면, 귀족과 공장주 부부(파렴치하고 무원칙한 부르주아 정치 모리배와 출세주의자들), 카톨릭 수녀들(음흉하고 위선적인 기독교 승려들), 상인부부와 민주투사(비겁하고 랭담하고 리기적인 소시민 근성의 소유자들)로서, 사실상 여주인공인 *Boule de suif*라는 이름을 가진 매춘부를 제외한 모든 등장인물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위선을 보여주는 비판대상인 셈이다.

「비계’ 덩어리」는 1965년에 출판된 ‘세계문학선집’ 43권 『프랑스 단편선』에 포함되어있고, 이것이 이 소설의 첫 번째 북한 번역본이다. 남한 번역본의 결렉스트와는 달리, 북한 번역본에서는 번역자의 이름 이외에 번역자의 경력이나 전공을 밝히는 경우가 없고, 번역자 서문에서 번역 원문을 밝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번역이 프랑스어 원전에서의 번역인지, 아니면 다른 번역의 중역인지

알 수는 없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이름의 번역자가 『서구라파문학사 20세기편 1』을 러시아어로부터 번역한 기록이 있으므로,<sup>1)</sup> 이 두 사람을 동일인으로 본다면, *Boule de suif*의 번역자 한경수가 러시아어 번역을 참고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북한의 번역 제목 「비계’ 덩어리」는 러시아어 번역의 제목 「ПЫШКА」(통통한 사람, 똥똥보)와는 사뭇 다르다. 오히려 북한의 선택 「비계’ 덩어리」는 *Boule de suif*의 단어 구조를 그대로 옮긴 영어역 제목의 *Ball of Fat* 또는 *Ball of Lard*나 일본어역의 제목 「脂肪の塊」(지방의 덩어리)와 유사하다.

북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을 통한 서구 문학 수용이라는 공통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당시 모파쌍이나 *Boule de suif*의 문학 수용 기록을 통해서 북한의 번역 제목 「비계’ 덩어리」의 기원을 찾아 보았다. 김병철(1980: 483)의 기록을 통해, 작가 ‘모파쌍’과 *Boule de suif*가 1925년 4월 21일자 동아일보 지면의 <근대문호소개>를 통해 작가의 이름과 “<脂肪 덩어리>(Boule de Suif)”로 작품 이름이 기록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잡지나 단행본을 통해서 이 단편이 한국어로 번역된 기록은 일제강점기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남한에서 단행본으로 가장 처음 출판된 것은 단기4287년(서기 1954년) 「기름진 여인,<sup>2)</sup>이라는 제목을 통해서였다. 그 다음에 출판된 1960년대 남한 번역본들의 제목이 「비계덩어리」와 「지방덩어리,<sup>3)</sup>인 것을 보면, 남한과 북한 모두 일제강점기 시절에 수용하였던 작품의 제목을 번역본을 통해 계승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영문학 수용을 연구한 김영희(2001: 34)는 북한의 영문학 번역서 제목이 남한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분단 이전부터 이어진 ‘한반도적 특징’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계승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비록 작가와 작품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이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문학을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점에서 남한과 다를지라도 작품의 제목 번역은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1) 안드레예브, 게.엘 & 싸마린, 에르.엠 지, 『(대학용)서구라파문학사 20세기편 1』 (1958), 문상민 & 한경수 역,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ttps://unibook.unikorea.go.kr/>, 2020년 4월 27일 검색)

2) 끼이.드. 모.파쌍 작, 『기름진 女人』, 오일경 역, 서울: 청춘사, 단기 4287년(1954).

3) 기.드.모파쌍, 『비계덩어리』 방곤 역, 서울: 양문사, 1960년 ; 포팻상, 『지방덩어리』, 이평우역, 서울: 대동당, 1960년.

모과쌍은 부르주아적 생활 세계를 진실하고 심각하게 비판적으로 묘사한 <비계’ 덩어리>에 있어서도 당시대 생활을 전일적 규모에서 부감하는 작가적 시야에는 도달하지 못 하였으며 **계급 투쟁의 문제를 정면으로 취급하는 데까지 문제를 심화시키지 못 하였다.** 그의 세계관의 제한성으로 하여 이것은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스탕달 외, 1965: 16; 논문 저자 강조).

1965년 북한 번역본 「비계’ 덩어리」에서는 우선 언어적인 면에서 1960년대 남한의 번역본과 비교할 만한 부분이 발견된다. 우선, 한국어 표기 방식이 그것인데, 작품의 제목 표기에서부터 「비계’ 덩어리」인 것처럼, 번역 텍스트 내부에서 ‘귀’ 부리’, ‘밭’ 걸음’, ‘장사’ 일’, ‘길’ 거리’와 같이 남한어에서는 조사 ‘의’로 연결되는 명사와 명사가 연결된 구조이거나, 된소리 자음의 발음 앞 또는 뒤에 아포스트로피(‘)를 표기를 한다. 박선희(2019: 106)는 이런 표기들이 1960년대 북한 번역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표기 현상으로 1990년대 이후의 번역본에서는 이런 아포스트로피 표기가 사라진다고 밝힌 만큼, 해당 표기법은 1960년대 당시의 북한어 표기의 고유한 특성인 것으로 보인다. 대명사 사용에서도 특이점이 발견된다. 프랑스어 여성 대명사 ‘elle(그녀)’는 북한 번역본에서는 남성대명사인 ‘그’로 번역되거나, ‘그 여자’와 같은 명사 어휘로 대체되는 현상이 일관되게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당시 북한에서는 여성대명사 ‘그녀’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표현의 번역에서는 프랑스 단위를 그대로 음차하는 이국화와 한국의 단위로 바꾸어 번역하는 자국화 현상으로 구분된다. 통화 단위는 당시 대혁명전의 프랑스 화폐 단위인 ‘50만 리블’(cinq cent mille livres)과 당시 프랑스 화폐 단위인 ‘60만 프랑’(six cent mille francs)를 그대로 옮겨 오는 이국화 방식을 사용하나, 프랑스의 거리 단위 ‘lieue’를 한국의 거리 단위였던 ‘리’로 계산하여 ‘40 리’(quatre lieues, 4 리)나 ‘30리’(trois lieues, 3 리)로 현지화하거나, 지방 행정 단위는 ‘현지사(縣知事)관저에서’(à la préfecture), ‘현청(縣廳)의 말몰이’군’(le cocher de la préfecture)과 같이 도착어 독자들에게 익숙한 ‘현’으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또한 북한 번역본에서 눈에 띄는 현상은 종교에 대한 무심함이다. 대혁명 이후로 카톨릭교가 프랑스에서 국교의 지위를 잃었다 하더라도, 프랑스 사회에

서 카톨릭 문화를 배제하고서는 이 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번역본에서는 종교어 번역에 있어서 카톨릭교와 불교 용어를 구분하지 않은 채, 카톨릭어를 불교어로 대부분 번역하거나, 또는 한 문장 내에서 카톨릭어와 불교어가 혼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à des curés obèses avec leurs longues soutanes’(1974: 27)<sup>4)</sup>을 ‘기다란 법의(法衣)를 걸친 기름진 배불뚝이 승려’(1965: 263)로 카톨릭 신부를 불교 승려로 바꾸어 번역하는 현상이 자주 발견된다. 당시 북한이 카톨릭 문화에 익숙하지 않거나, 카톨릭 용어가 없는 것인지 의심스럽기도 하였지만<sup>5)</sup>, ‘et de temps en temps elles baisaient une médaille, se signaient de nouveau, puis recommençaient leur marmottement rapide et continu.’(1974: 118)을 ‘녀승들은 간혹 가다가, 목에다 늘인 예수의 성상에 키스하고 다시 십자를 굶더니 또 재빨리 입을 놀리곤했다.’(1965: 302)<sup>6)</sup>라는 번역을 보면, 카톨릭 종교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카톨릭교와 불교 용어를 무심하게 섞어서 번역하는 현상을 통해 번역자는, 또는 번역을 출판한 북한 당국은 특정 종교를 통해 북한 독자들로 하여금 프랑스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문화적 차원의 정보 전달에는 관심이 적었거나, 프랑스 문학 속에 포함된 종교적 요소 그 자체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 3. 번역의 충실성

그렇다면 이 번역본은 서구 문학의 한국어 번역으로 얼마나 충실한 판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장에서 말하는 ‘번역의 충실성’이라는 것은 ‘충실성’과 ‘가독성’으로 이원화되는 개념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처럼 원문의 단어를 빠짐

- 4) ‘des curés’는 ‘카톨릭 사제’, ‘soutane’은 카톨릭 신부가 입는 ‘사제복’을 의미한다.
- 5) 1800년대에 프랑스의 카톨릭 신부들이 개신교 목사들보다 먼저 한반도에서 선교활동을 하였으며, 구한말 개화기 시절 여러 번의 카톨릭 종교 박해가 있었던 역사를 상기하면, 북한에 카톨릭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
- 6) ‘elle’는 ‘그녀’, ‘une médaille’는 ‘메달’, ‘se signaient’는 ‘표시하다’로 원문보다 오히려 번역문에서 종교적 색채가 더 짙어졌는데, 불교 용어와 카톨릭 용어가 혼용되어 있다.

없이 대응하여 옮겨내는 직역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9세기 프랑스 사회를 20세기 북한에서 번역하는 작업인 만큼, 번역의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거리와 공간적 거리를 뛰어넘기 위해 얼마나 충실한 문학 텍스트의 번역 작업을 하였는지에 대한 고찰이다.

번역 서문에 드러난 대로, 이 텍스트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 모순과 위선을 비판하고자 하는 번역 주체들의 정치성이 보이는 만큼, 정치적 목적을 충족시키는 번역을 생산하기 위해 원문의 표현이나 문장을 자주 누락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의미를 왜곡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번역의 충실성 차원에서 검토되었다. 결과적으로 1965년 한경수의 북한 번역은 모파상의 원문 표현이나 문장을 자주 누락한다거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위해 의미를 전략적으로 왜곡한 번역본은 아니다. 원문과 번역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해보면, 어찌다 생략된 부분이 발견되기는 하나 그런 생략은 실수로 보여질 정도로 원문에 충실한 편이다.

물론 어찌다 어려운 문장 구조나 어휘 번역에 있어서는 오역이 발견되고, 1960년대에는 현재에 비해서 프랑스 사회에 대한 정보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적 요소의 번역에서 아쉬운 부분이 발견되기도 한다.

다음은 그 중에서 단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오류가 일어난 사례이다. 원문과 비교해보지 않아도 번역문 자체의 맥락에서도 번역 어휘의 의미가 뜬금없이 느껴진다.

ST: ce murmure devint bientôt un frémissement clair et continu, rythmé par le mouvement de l'animal, s'arrêtant parfois, puis reprenant dans une brusque secousse qu'accompagnait le bruit mat d'un sabot ferré battant le sol. (87)

TT: 말의 움직임에 따라 그 소음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면서 때로 중단되었다가는 갑자기 또 요란스러워지곤 하더니 뒤미처 징을 박은 나막신이 땅에 부딪는 둔한 소리가 들려 왔다.(264)

루앙을 떠나는 여객들의 마차를 끌게 될 말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갑자기 ‘징을 박은 나막신’이라는 알 수 없는 표현이 등장한다. 맥락 상, 이 발길질은 사람이 아닌 말의 발이 땅에 부딪치는 소리일 것이므로 ‘sabat’라는 명

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 중 ‘(말의) 발굽’으로 옮겨와야 하는데, 명사 ‘sabat’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인 사람이 신는 ‘나막신’으로 번역하여 맥락과는 맞지 않는 어휘가 선택된 것이다.

다음과 같이 문화적 함의를 담은 어휘 표현에서도 모호한 번역이 발견된다.

ST: Elles se trouvaient toutes dans un long couloir que terminait une porte vitrée marquée d'un numéro parlant. (99)

TT: 기다란 복도를 따라 좌우에 방들이 늘어 있고, 복도 막바지에는 번호가 뚜렷이 붙은 유리문이 닫혀 있었다. (278)

ST: Elle tenait un bougeoir à la main et se dirigeait vers le gros numéro tout au fond du couloir. (102)

TT: 녀인은 한 손에 촛대를 들고, 복도 막바지에 있는 번호가 붙은 커다란 방문을 향해 걸어 가고 있었다. (282)

다음 장에서 계속 언급하겠지만, 한경수의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도착어로 명시적으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고, 북한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적 요소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역주를 활용하여 문화적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를 하였다. 원문의 ‘un numéro parlant’(말하는 번호)이나 ‘le gros numéro’(큰 번호)를 ‘번호가 붙은’으로 번역하였는데, 이 번역 표현으로는 여주인공, 불 드 쉬프가 들락거리는 이 방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 이 번역본의 번역 문체 특성 상, 번역자가 이 방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화장실 문’이라는 명시적인 번역을 하였거나, 어휘 의미를 추가적으로 역주처리를 하였을 법한 부분이다.

당시 프랑스의 일부 호텔에서는 화장실의 문 앞에 ‘100’이라는 번호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프랑스어 동사 ‘sentir’(냄새 나다)의 3인칭 단수 현재형 ‘sent’과 숫자 ‘100(cent)’이 발음이 같기 때문에(Maupassant, 1974: 1306), 일종의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문화적 말 장난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화장실 문 앞에 붙은 번호 100을 작가가 ‘un numéro parlant’(말하는 번호)와 ‘le gros numéro’(큰 번호)로 표현하였으나, 번역자는 이 부분을 단순히 ‘번호가 붙은’으로 번역처리함으로써, 번역 독자들은 밤에 불 드 쉬프가 촛대를 들고 들어가는

그 공간이 화장실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사실상 어떠한 번역에서도 오류가 없는 번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아쉬운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한경수의 번역이 충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원문의 오류를 수정하여 번역한 경우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ST: On avait marché onze heures, ce qui, avec les deux heures de repos laissées en quatre fois aux chevaux pour manger l'avoine et souffler, faisait quatorze. (98)

TT: 마차는 이미 열 한 시간째 달리고 있었다. 말들에게 사료를 먹이고 한숨 돌리게 하기 위해서 네 번에 켜어서 소비한 두 시간의 휴식을 가산한다면 열 세 시간은 셈이었다. (276)

위의 예는 프랑스인 여행객들이 프러시아 장교와 갈등을 빚는 주요 무대인 토트(Tôtes)에 도착하는 장면과 관련된다. 여행객을 실은 마차가 루앙을 떠나서 토트에 도착하기까지의 걸린 시간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모파상은 시간 계산의 오류를 범하였다. 마차가 주행한 시간 'onze heures'(11시간)과 중간 휴식 시간 'les deux heures'(2시간)을 더하면 '13시간'이지만, 원문은 'quatorze'(14)시간으로 계산하고 만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갈미마르판(1974)본의 주석 작업을 한 루이 포레스티에(Louis Forestier)는 아무리 봐도 이 계산은 실수이며, *Boule du suif*의 어떠한 *variante*(이본)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기 때문에(Maupassant 1974: 1306), 북한 번역자가 참고한 번역 저본도 'quatorze(14)'이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북한 번역은 원문의 오류를 수정 번역한 것이기 때문이다.<sup>7)</sup>

다음으로는 북한 독자들이 모파상의 텍스트를 한국어로 어려움 없이 이해하도록 번역자가 시도한 번역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분류해 보았다.

#### 4. 번역의 가독성

한경수의 번역은 자연스러운 도착어로 표현되었고, 원문의 기저에 감추어진 의미를 밖으로 끄집어 내어 명시적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원문의 프랑스어 구조를 그대로 옮겨내는 번역이었으면 상당히 어색하였을 구문들을 프랑스어의 언어적 물리성을 벗겨내고 자연스러운 도착어로 변조한 경우를 살펴보자.

ST: L'autre, très chétive, avait une tête jolie et malade sur une poitrine de phthisique rongée par cette foi dévorante qui fait les martyrs et les illuminés. (90)

TT: 다른 녀성은 몹시 허약했는데, 폐병을 앓는듯 한 그 가슴은 순교자(殉教者)나 종교적 환상가를 낳게 하는 그 열광적인 신앙이 쪼먹었고,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병색이 돌고 있었다. (267)

병든 수녀의 외모를 묘사하는 위의 구문에서 'avait une tête jolie [...] sur une poitrine'<sup>8)</sup>를 그대로 직역하면 상당히 어색한 묘사 표현이 되었을 텐데, 번역자는 원문의 언어 구조를 해체한 후, 'une tête'(얼굴)과 'une poitrine'(가슴)을 분리하여 번역함으로써 도착어 표현의 어색함을 피하였다. 또한 'avait une tête jolie et malade'를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병색이 돌고 있었다'로 자연스럽게 변조하고, 자구대로 번역하면 어색하였을 수동태 구문 'rongée par cette foi dévorante'를 '그 열광적인 신앙이 쪼먹었고'로 능동태로 변조함으로써 수녀의 외모 묘사가 자연스럽다.

또한 북한 번역에서는 프랑스어의 속담이나 격언의 경우, 프랑스어의 의미 그대로 번역하여 이국성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속담으로 등가 번역을 시도하였다.

ST: — Il salua : — « Ma foi, franchement, je ne refuse pas, je n'en peux plus. À la guerre comme à la guerre, n'est-ce pas, madame ? » (94)

TT: 루아조는 꾸뻑 인사하였다.

7) 반면에 1960년대 남한에서 출판된 방곤(1960), 이평우(1960), 양원달(1962)역 모두 이 부분을 원문과 동일하게 '열 네 시간'으로 번역하였다.

8) 이 부분을 자구대로 옮겨 '가슴 위에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이다.

«그렇지 않구요. 사양치 않고 호의를 받아 들이겠습니다. 더는 참지 못 하겠어요.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하겠으니 말입니다.» (272)

ST: Le premier pas seul coûtait. Une fois le Rubicon passé on s'en donna carrément. (95)

TT: 첫 걸음을 떼기가 어려웠을 뿐이었다. 한 발자국 내디딘 마음에는 사양도 사정도 없이 척척 진척돼 나갔다. (274)

위에서 보이는 바 대로, 원문의 ‘À la guerre comme à la guerre’(전시에는 전시에 맞게)와 ‘Une fois le Rubicon passé’(한 번 루비콘 강을 건너자)는 모두 북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한국 속담으로 대체되거나, 보다 평이한 표현으로 대체되는 현지화 전략을 시도하였다.

도착어 독자들이 모파상의 소설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번역자의 시도는 이처럼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이나 한국 속담으로 대체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 번역본에서는 원문 표현을 보다 명시적으로 번역하거나, 해당 장면의 등장 인물의 감정을 보다 강하게 번역하는 강제화 현상들이 자주 발견되는데, 이러한 명시화나 강제화의 번역 특성은 번역문의 가독성을 높일 뿐 아니라, 동시에 번역 텍스트의 정치성을 부각시킨다.

## 5. 번역의 정치성

### 5.1 명시화와 강제화 - 전쟁 폐해와 애국심 강화

이런 결과는 원문 *Boule de suif*의 이야기가 프랑스와 독일 간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등장 인물들의 조국 프랑스가 전쟁 상대자인 프러시아<sup>9)</sup>에 패하여 지배를 받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소설의 배경으로 인해 번역의 명시화와 강제화는 전쟁의 참상을 통해 침략자에 대한 저항 의식을 불러 일으키고 애국심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번역 표현의 명시화와 강제화적 특성과 관련하여, 우선 번역 표현이 원문

9) 프러시아는 보불 전쟁 승리 후에 독일 제국으로 국명을 변경한다.

보다 강해지면서 침략자에 대한 분노를 생생히 드러내는 부분부터 고찰해보자.

ST: Mais quand je les ai vus, ces Prussiens, ce fut plus fort que moi ! Ils m'ont tourné le sang de colère ; [...] Je les regardais de ma fenêtre, ces gros porcs avec leur casque à pointe, (96)

TT: 그렇지만 그 자식들을, 그 프로씨야 병정 놈들을 보자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도 화가 치밀어 온 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 우리 집 창문에서 전 뽀죽한 모자를 쓴 그 살찐 돼지새끼들을 쏘아 보고 있었지요. (274)

소설의 주인공 불 드 쉬프가 자신의 집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점령자들인 프러시아 군인들에 대한 분노를 쏟아 내는 부분이다. 불 드 쉬프가 ‘ces Prussiens’(그 프러시아인들)과 ‘ces gros porcs’(그 살찐 돼지들)라고 한 발화를 번역자는 ‘그 프로씨야 병정 놈들’과 ‘그 살찐 돼지새끼들’이라고 표현을 원문보다 강하게 바꾸었다. 강한 표현으로 침략자에 대한 여주인공의 분노가 독자들에게 보다 생생하게 전달되게 한다.

다음은 원문에 없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침략자에게 순종하는 동향인들에 대한 반감을 강화한다.

ST: et pareillement révoltés par la souplesse de leurs compagnons, elle, tâchait de se montrer plus fière que ses voisines les femmes honnêtes, (99)

TT: 다른 동료들의 무골충 같은 순종에 반발을 느낀 녀인은 자기 옆에 있는 귀부인보다 높은 긍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려 주려고 노력하였다. (277)

마차가 토트에 도착하자, 여행객들은 프러시아 군인들의 검문을 받게 되고, 먼저 차에서 내린 귀족과 공장주, 상인 부부와 두 수녀가 프러시아 장교에게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대해 불드쉬프는 반발심을 느낀다. 원문에서 작가는 이에 대해 ‘par la souplesse de leurs compagnons,’(그들의 동반자들의 순응성)이라고 표현하였을 뿐인데, 번역자는 원문에 없는 ‘무골충 같은’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침략자에게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동향인에 대한 주인공의 반감

을 더 강화하고 있다.

다음은 번역문이 전쟁 패배자로서 느끼는 공포심을 원문 보다 더욱더 강화한 사례들이다.

ST: — « Si l'on se sauvait à pied, » — dit Loiseau. Le comte haussa les épaules : — « Y songez-vous, dans cette neige ? avec nos femmes ? Et puis nous serions tout de suite poursuivis, rattrapés en dix minutes, et ramenés prisonniers à la merci des soldats. » (109)

TT: «도보로 도망치면 어떻게?»고 루아조가 말했다. 백작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아니 그래, 이 눈 속을 부인네들을 데리고 갈 수 있을 상 싶소? 그러다간 곧 추격을 당하여 10 분도 못 가서 붙잡혀 가지고 포로로 끌려 와 별의별 고초를 겪을라구.»하고 말하였다. (290)

프러시아 장교가 불 드 쉬프와의 하룻밤을 요구하며, 그들의 출발을 계속 금지하자, 상인 루아조는 프러시아 군인들을 피해 걸어서 도망가자는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해 백작은 도망가다 잡힐 경우, 프러시아 군인들에게 그들이 겪을 일에 대해 말한다. 원문의 백작은 ‘ramenés prisonniers à la merci des soldats’ (군인들에게 잡혀서 포로로 끌려와) 정도로만 말하고 있는데, 번역문의 백작은 ‘별의별 고초를 겪을’ 것이라는 보다 상세하고 강한 표현으로 말하여 동행인들에게 침략자에 대한 공포를 불러 일으킨다.

여관 여주인이 프러시아 군인들을 평가하는 장면에서도 여관의 여주인은 ‘ordurer’(쓰레기나 배설물로 더럽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번역문에서는 침략자인 군인들이 여성들을 성적으로 범한다는 의미를 부각시킨다.

ST: Et il ne faut pas croire qu'ils sont propres. — Oh non ! — Ils ordurent partout, sauf le respect que je vous dois. (101)

TT: 그 녀석들을 아름다운 인간이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어렵도 없지요. 짐작은 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긴 죄송하지만 그 녀석들은 가는 곳마다 여자들을 건드린답니다. (280)

원문 ‘Ils ordurent partout.’(그들은 사방에서 더러운 짓을 합니다)에서는 프

러시아 군인들의 수준이 낮아서 청결하지 못해 지저분하게 행동한다는 의미로도 해석가능한 맥락인데도, 번역문에서 전쟁 침략자들이 저지르는 성범죄의 의미를 선택함으로써 전쟁 피해자들로 하여금 침략자들에 대한 공포를 느끼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원문에 없는 표현을 추가하거나, 여러가지 선택가능한 해석들 중 하나의 의미만을 강제화하여 번역하는 방식은 과거 식민지 지배와 전쟁을 경험하였던 도착지 번역 독자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한 공포와 침략자들에 대한 반감, 그리고 애국심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하였을 것이다.

## 5.2 호칭 번역 - 지배와 피지배 관계 부각

번역문에서 지배자인 프러시아 군인과 피지배자인 프랑스인들에 대한 호칭이 원문과 달라지면서 지배와 피지배자들의 간의 상하 구조를 명확히 하기도 한다.

프러시아 장교의 심부름으로 여관 주인 폴랑비가 장교의 말을 불 드 쉬프에게 전하는 아래의 장면에서 등장인물들에 대한 호칭이 원문과는 다르게 번역되었다.

ST: Comme on allait se mettre à table, M. Follenvie reparut ; et de sa voix graillonnante il prononça : « L'officier prussien fait demander à Mlle Élisabeth Rousset si elle n'a pas encore changé d'avis. » (107)

TT: 막 식사를 하려 가려고 할 즈음에 폴랑비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목 안에서 가래가 끓는듯 한 목소리로

«프로씨야 장교 나리가 엘리자베트 루셰의 마음이 아직 돌아 서지 않았는지 여부를 알아 오라고 말씀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 (287)

작가는 서술문에서 여관 주인을 ‘M. Follenvie’(무슈 폴랑비)로 존칭하며, 여관 주인은 직접화법에서 불 드 쉬프를 ‘Mlle Élisabeth Rousset’(마드므와젤 엘리자베스 루셰)로 존칭한다. 반면에 여관주인은 프러시아 장교를 ‘L'officier prussien’(프러시아 장교)라고 부르며 그의 전언을 프랑스인들에게 전한다. 원문에서는 프랑스인들끼리 서로 ‘무슈’와 ‘마드므와젤’로 존대하며, 프러시아인에

대해서는 존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번역에서의 프랑스인들은 ‘포랑비’와 ‘엘리자베트 루쎌’로 불리워 존칭이 사라지고, 반대로 여관 주인 폴랑비는 프러시아 장교를 ‘프러시아 장교 나라’로 존칭하며 그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번역되었다. 원문과 달리, 번역문에서는 지배자를 존칭하고 피지배자에 대해서는 원문에 있던 존칭을 없앴으로써 전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프랑스인과 프러시아인들의 처지를 대비시킨다.

### 5.3 어휘 해석 -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 투영

번역의 생산지가 사회주의 국가임을 드러내는 번역 현상도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어휘 번역에서 드러난다.

모파상의 원문에서 사용된 어휘들 중에 도착지 국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번역어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 정권의 정식 명칭에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점에 알 수 있듯이, 모파상의 텍스트에 발견되는 ‘le democ’(268)과 ‘les démocrates’(275)는 ‘민주주의자’(90)와 ‘민주주의자들’(90)로 자본주의 국가들과 다름 없이 번역되었다. 반면에 ‘un peuple entier’(전체 주민)(85)은 ‘인민’(261)이라는 사회주의 용어로 대체된다.

ST: Les trois hommes montèrent et furent introduits dans la plus belle chambre de l'auberge où l'officier les reçut, étendu dans un fauteuil, les pieds sur la cheminée, fumant une longue pipe de porcelaine, et enveloppé par une robe de chambre flamboyante, dérobée sans doute dans la demeure abandonnée de quelques **bourgeois** de mauvais goût. (106)

TT: 세 사나이는 2층에 올라 가자, 장교가 자리잡고 있던 이 러관의 제일 좋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장교는 안락의자에 느린히 누워서 난로 우에 두 다리를 얹은 채 기다란 도자기 파이프로 담배를 피워 물고는 아마도 몰척 미한 **부자가** 내버리고 간 집에서나 훔쳐 온 상 싫은, 진홍색 실내옷으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 (286)

그 밖에도 위와 같이 프랑스어 ‘bourgeois’(부르주아)를 번역문에서 단번에 ‘부자’로 정의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를 바라보는 사회주의 국가의 시각을 드러낸다. ‘부르주아’는 단순히 부자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프러시아 장교가

뺏어 입고 있는 ‘une robe de chambre(실내복)’은 프랑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입는 복장이다.

다음의 사례도 자본주의 사회의 ‘부자’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시각을 드러낸다.

ST: Voyez-vous, monsieur, entre pauvres gens, faut bien qu'on s'aide...

C'est **les grands** qui font la guerre. » (90)

TT: 그런데...나오리'님, 가난한 사람들끼리는 반드시 서로 도와살아야 합니다. ... 전쟁을 저지르는 건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요. » (283)

위의 발화는 체류지 동네의 성당 사환이 등장 인물 중 한 사람인 백작에게 섰한 프러시아군인들을 두둔하면서 하는 말이다. 사환이 말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 ‘les grans’<sup>10)</sup>을 북한 번역자는 ‘돈 많은 사람들’로 번역하였다. 이 지점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들을 부자들로 정의하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드러낸다.

이처럼 번역자의 의도적인 정치적 선택이던, 혹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학습된 번역자가 성실히 번역한 무의식적인 노력의 결과이던 간에, 이러한 어휘 번역 사례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생산된 텍스트를 사회주의 국가에서 번역함으로써 발생하는 아이러니한 번역 현상들로 꼽을 수 있겠다.

## 6. 결론

지금까지 1965년에 북한에서 번역된 한경수의 번역본을 모파상의 원문과 상호비교한 결과를 ‘번역의 충실성’과 ‘번역의 가독성’, ‘번역의 정치성’이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 번역 행위에는 원문 자체가 전쟁 승리자와 배패자라는 지배와 피지배자 구조를 갖추고 있고, 냉전의 시기에 자본주의 국가의 문학을 사회주의 국가에서 번역하였다는 두 가지 특성에 의해서 기

10) ‘grand’은 ‘큰, 위대한’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이다. 이 맥락에서는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 정도가 적당할 듯하다.



본적으로 번역에서 정치성이 배제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텍스트 번역에 필요한 번역자의 충실한 번역 시도들이 확인되었고, 북한 독자들이 하여금 이국의 언어와 문화를 낯설게 느껴지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도착어 표현으로 재표현하려는 번역 작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번역 독자들에게 분명한 의미를 전하고자 시도한 번역 표현의 명시적, 그리고 강제적 변화, 어휘 표현의 변조 등은 이 전쟁 이야기에서 전쟁의 폐해를 강조하고 애국심을 강화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며,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번역자와 번역 주체의 시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것은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왜곡적 시도이기 보다는 번역의 도착지가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 번역자와 번역 주체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번역과정에 자연스럽게 투영된 현상으로 파악된다.

번역의 도착지에 따른 번역 선택의 결과적 차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동시대에 남한에서 번역된 *Boule de suif*의 번역본들과 대조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영희 (2001) 「북한 영문학 서설」, 『안과 밖』, 11: 9-29.  
 김병철 (1980) 『한국근대서양문학이입사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김병철 (1988)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김치수 (1979) 『문학사회학을 위하여』, 서울: 문학과 지성사  
 김현 (1983) 『문학사회학』, 서울: 민음사  
 문상민, 박치원, 한경수, 황경희 (1958) 『서구라파 문학 개관』, 평양: 국립문학 예술서적출판사.  
 박선희 (2019) 「북한의 프랑스 문학 번역본의 결텍스트 분석」, 『프랑스어문교육』, 64: 95-124.  
 리기도. (1996) 『주체의 문예관과 외국문학』,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스탕달 외 (1965) 『프랑스 단편선』,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오오무라 마스오. (2003) 「북한의 문학선집 출판현황」, 『운동주와 한국문학』,

- 서울: 소명출판, 350-365.  
 이은정 (2019). 「북한 문학번역과 수용의 프레임 연구: *Gone With the Wind*를 중심으로」, 미출간 박사학위 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정혜용 (2020) 「모파상의 비계덩어리 번역비평 시론」, 『프랑스어문교육』, 35: 413-437.  
 최경희, 홍유미 (2001) 「북한의 셰익스피어」, 『안과 밖』, 11: 37-58.  
 Johan Heilbron and Gisèle Sapiro (2002) ‘La traduction littéraire, un objet sociologique’,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144: 3-5.  
 Loana Popa (2002) ‘Un transfert littéraire polonois, Circuits de traduction des littératures d’Europe de l’Est en France, 1947-1989’,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144: 3-5.  
 Michaela Wolf (2007) ‘The emergence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in Michaela Wolf & Alexandra Fukari (ed.),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1-36.  
 Pascale Casanova (2002) ‘Consécration et accumulation de capital littéraire, La traduction comme échange inégal’,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144: 7-20.
- 원문 및 번역본  
 Maupassant, G., (1974) *Boule de Suif* in *Contes et nouvelles* I, Paris: Gallimard, 83-121.  
 모파상 (1965). 「비계 덩어리」, 『프랑스 단편선』, 한경수 역,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259-304.  
 끼이.드. 모파상 작 (1954), 『기름진 女人』, 오일경 역, 서울: 청춘사, 단기 4287년.  
 기.드.모파상 (1960) 『비계덩어리』, 방곤 역, 서울: 양문사, 단기4293년.  
 모파상 (1960) 『지방덩어리』, 이평우 역, 서울: 대동당, 단기4293년.  
 모파상 (1962) 「부울 드 쉬프」, 『여자의 일생, 피에르와 장』, 양원달 역, 서울: 을유문화사,  
 Flaubert, Gustave & Maupassant, Guy de, 『보브리이夫人, 女の一生』, 中村星

湖 & 廣津和郎 翻譯, 世界文學全集 (第1期). 第20卷, 東京 : 新潮社 , 昭和2年[1927].

기타 인터넷 사이트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ttps://unibook.unikorea.go.kr/> (2020년 4월 27일에 검색했음).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https://ndlonline.ndl.go.jp> (2020년 5월 4일에 검색했음).

[Abstract]

### A study on the 1960s North Korean translation of *Boule de Suif*

Park, Sunheui  
(Korea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ical, political and literary features of the 1965 North Korean translation of *Boule de Suif*. This 19th century French short story, written by Guy de Maupassant, relates the experience of a group of French people who are traveling during the period of the Franco-Prussian War. The travelers represent various social classes in French society at that time. Therefor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North Korean translation, some of the characters symbolize the bourgeoisie and the religious factions prevalent in capitalist countries.

As the first step in studying this North Korean translation of the story, I have examined its circumstances of production, including its historical and social reception and the background of the translator, and have drawn out the linguistic and translational features of the 1965 text. As the second step, I have investigated the faithfulness to the original of the translation in order to examine if it has functioned in the North Korean context as a literary work that originated in an older era and in a foreign and western country. As the next step, I have considered the readability of the translation in order to examine whether North Korean readers have understood what the author wanted to convey, through the prism of the Korean language. As the last step, I have analyzed the political dimensions of the translation, in light of the original text being set against a background of war and of the translated text being produced in a socialist state.

▶ Key Words: literary translation, translation in North Korea, sociology of translation, political translation, translation of French novel

▶ 주제어: 문학 번역, 북한 번역, 번역 사회학, 정치적 번역, 프랑스 소설 번역

박선희

고려대학교 BK21PLUS번역불문사업팀 연구교수

omoname@korea.ac.kr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수용, 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20년 5월 5일

심사완료일: 2020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 2020년 5월 25일